

---

---

## 4월혁명문학과 부산

이 순 욱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

---

### 차 례

- |                         |                       |
|-------------------------|-----------------------|
| I. 들머리                  | 1. 증언시와 현장성           |
| II. 4월혁명문학의 창작 환경과 부산   | 2. 추도시와 혁명의 영속성       |
| 1. 4월혁명문학과 부산의 매체 환경    | 3. 정치시와 투쟁성           |
| 2. 4월혁명시의 생산과 신문매체의 기동성 | 4. 아동문학과 민주공화국에 대한 기대 |
| 3. 『힘의 선언』과 경남·부산 지역성   | IV. 마무리               |
| III. 4월혁명문학과 민주주의적 동원   |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

### I. 들머리

우리문학사에서 196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 단절되다시피 한 문학의 사회정치적 역할을 자각하게 되는 시기이다. 4월혁명은 이러한 경향으로의 극적 전환을 마련해 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4월혁명의 위상은 문학의 새로운 좌표 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월혁명은 한국전쟁의 상흔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문인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과 정치의식을 일깨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단 혁신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4월혁명문학은 이승만 정권과 비민주적인 가치 체계에 대한 단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반국가적인 성격을 띤다. 그

것은 정치의식과 정치적 실천을 전면에 표출한 ‘힘의 선언’이자 피의 선언이었다. 혁명 당시 신문과 방송매체에서 즉각적으로 생산된 시<sup>1)</sup>는 곧바로 단행본 혁명기념시집으로 갈무리되면서 가장 폭넓게 재생산되었다.<sup>2)</sup> 시뿐만 아니라 소설<sup>3)</sup>, 수기, 논픽션<sup>4)</sup>, 아동문학, 방송극<sup>5)</sup>, 추모집, 항쟁사, 화보집, 장편기록영화의 생산과 향유는 피의 함성으로 얼룩진 혁명 열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 1) 방송시의 존재는 4월혁명문학의 존재방식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나, 문화방송에서 방송시를 낭독한 정공채의 경험담을 통해서 이 시기 혁명시의 공론성을 엿볼 수 있다. “十分동안 電波를 타고 흘러보낸 나의 목소리는 「이번 봄에 關해서」란 題下에 民主主義 爭取의 最初의 피의 橋頭堡였던 三·一五의 流血의 馬山 「테모」 事件이었다. 나는 짐짓 泰然하려 했으나 나의 목소리는 事實上 떨려나갔다. 얼마간 얘기를 한 뒤 준비해온 詩 한 편을 읽었다. 그 詩 역시 馬山에서 銃을 맞아 죽은 吳成元이의 억울하고 불쌍한 그의 무덤에 그의 친구 담배팔이 구두담이 少年들이 때문은 돈을 서로 모아 가난한 墓碑를 세우고 그 碑銘에 「길가는 나그네여! 여기 잃어버린 民主主義를 찾으려다 三月十五日 밤 無慘히도 쓰러진 二十一年의 꽃봉오리가 누워있음을 傳해다오…」란 內容을 「테마」로 한 悲憤의 詩였다. 放送을 끝내었을 때 속이 후련했다. 하지만 은근히-오�히려 젊은 놈답지 못하게 겁이 났다.” 정공채, 「自由의 旗手 「젊은 獅子들」, 『국제신보』, 1960.5.1, 4면.
- 2) 이 시기에 나온 기념시집, 영화, 수기집, 추모집, 투쟁사, 화보집의 발간 현황에 대해서는 이순욱, 2007, 「4월혁명시의 매체적 기반과 성격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5집, 한국문학회, 369~376쪽을 참고할 것.
- 3) 조정식, 1960.7.15, 『4·19의 별』, 아동문화사. 조정식은 이후에도 4월혁명을 다룬 실명소설 『이 生命 다하도록』(미림출판사, 1968)을 출간하기도 했다.
- 4) 김용규, 1960.7.3, 『朱烈은 죽지 않았다!』, 부산:국제신보사. 이 책은 표제에 ‘故김주열군의 수기편’이라 밝히고 있으나, 내용을 보아 김주열의 투쟁사를 재구성한 논픽션에 가깝다.
- 5) 4월혁명을 제제로 삼은 방송극으로는 한운사의 「조용한 憤怒」(『방송』, 1960년 여름호)가 있다. 또한, 김영수가 4월혁명을 다룬 방송극 「나는 보았다」(1960.4.29)와 학생 희생자 추모특집극으로 「찬란한 아침」(1960.5.19)을 썼다는 기록이 있다. 김영수의 방송극은 KBS방송극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 단행본이나 잡지 매체에서도 온전하게 갈무리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 시기에 생산된 혁명문학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익숙하게 알려진 명망주의 작가나 작품만을 대상으로 4월혁명의 성격과 의의를 소박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아가지 못했다. 신동엽과 김수영, 박봉우로 대표되는 몇몇 작가에 매몰되어 4월혁명의 문학적 지향과 의의를 재단하려는 기존의 연구 관점 또한 여전하다. 더욱이 『4월혁명기념시전집』(신경림 엮음, 학민사, 1983)이 정전의 반열에 오름으로써 지역별·매체별로 다양하게 생산된 4월혁명문학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말았던 것이 학계의 현실이다. 이렇듯 익숙하게 알려진 연구대상에 기대어 기존의 논의를 반성 없이 재생산한다면, 4월혁명문학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제야말로 연구대상과 시기, 방법에서 새로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글은 부산 지역에서 생산된 4월혁명문학의 발생론적 환경을 점검하고, 혁명문학의 창작 주체와 성격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물론 부산에서 전개된 항쟁을 형상화하거나 부산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담은 혁명시를 찾아보기 어렵다. 부산의 독자성을 추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산의거에서 촉발된 4월혁명문학의 일반적 특징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다. 이처럼 혁명문학의 지역적 독자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까닭은 지역별 항쟁의 개별성과 고유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에 눈길을 주는 것은 4월혁명문학의 공시적·통시적 흐름으로 수렴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재구성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sup>6)</sup> 역사가 단일한 흐름이

6) 부산 지역에서의 4월혁명 전개과정과 정치적 지향, 지역민들의 역할은 부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일민·박철규, 1998, 「4월혁명과 1960년대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부산민주운동사』 부산광역시, 171~204쪽; 유영국, 2004, 「한국 정치변동과 부산시민의 정치적 역할: 4월혁명, 부마항쟁, 6월항쟁을 중심으로」, 『부산학 총서』제2권, 신라대 부산학연구센터, 146~159쪽; 김선미, 2008, 「이종률의 민주운동과 정치사상」, 부산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마산의거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놓였던 부산에서 생산된 4월혁명문학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사회정치사를 재구할 수 있는 시각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II. 4월혁명문학의 창작 환경과 부산

### 1. 4월혁명문학과 부산의 매체 환경

매체는 문학의 창작과 향유를 증폭시키는 실질적인 토대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문이다. 신문 매체는 4월혁명의 이념과 의의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공론장(public spheres)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실질적 환경이었다. 당시 부산의 지역지인 『부산일보』와 『국제신보』, 『민주신보』는 혁명문학의 창작과 향유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sup>7)</sup> 이들 신문 매체는 ‘독자투고란’을 두어 전문문인뿐만 아니라 시민과 학생들에게 발표지면을 제공하였다. 1960년 혁명발발부터 12월말까지 4월혁명시는 『마산일보』 16편, 『조선일보』 20편, 『동아일보』 24편 정도를 헤아린다.<sup>8)</sup> 이에 반해 『국제신보』와 『부산일보』에 50편에 가까운 시가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부산이 혁명문학의 창작과 향유에서

---

대 박사논문, 141~180쪽.

7) 『민주신보』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소장하고 있으나, 1960년 치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

8) 여기에 대해서는 이순옥, 2006, 「남북한문학에 나타난 마산의거의 실증적 연구」, 『영주어문』 제12집, 영주어문학회, 276~277쪽; 이순옥, 2007, 「4월혁명시의 매체적 기반과 성격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5집, 한국문학회, 398~399쪽을 참고할 것.

지역 대표성을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산에서 4월혁명문학이 적극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었던 까닭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1950년대 부산의 문화론적 환경이다. 한국전쟁기를 거치면서 지식인들의 도시 집결과 교육기회의 확대, 대중매체의 영향력 확산이 청년계층과 학생계층의 문화의식을 드높이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국전쟁기 부산은 임시수도로서 이러한 사회적 제도와 물적 기반이 집중됨으로써 문화지형의 재편과 변화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정부의 환도 이후 일시적인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문화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이 부산 지역민들의 문화수준과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전쟁기를 거치면서 부산 지역 학생문단의 형성과 전개 과정<sup>9)</sup>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학생들의 의식적 성장과 사회 활동이 두드러졌다. 1950년 후반부터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시위의 주체는 주로 학생이었다. 이와 더불어 민족문화협회<sup>10)</sup>의 결성과 암장(岩漿) 그룹<sup>11)</sup>의 활동이 청년학생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학생과 지식인 계층이 주도한 4월혁명의 과정에서 부산 지역 희생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던 점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9) 이순욱, 2010,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문학과 동인지」, 『영주어문』 제19집, 영주어문학회, 121~156쪽.

10) 이종률이 주도하고 훗날 김정환과 이주홍까지 참여한 민족문화협회의 결성과 활동은 김선미가 자세하게 다루었다. 김선미, 2008, 「이종률의 민족운동과 정치사상」, 부산대 박사논문, 132~134쪽.

11) 당시 부산고를 비롯한 부산 지역 고등학생들의 이념씨클인 ‘일꾼회’를 개명한 ‘암장’은 졸업한 후에도 정기모임을 통해 서로의 활동을 보고하고 시국강연회나 문학의 밤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대중운동을 벌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역음, 1992, 『암장』, 지리산, 48~100쪽. 암장 성원들과 부산의 진보적 청년들의 결합은 4월혁명 이후에 이루어진다.

않을 것이다.

둘째, 정론직필의 자유언론을 고수했던 부산의 미디어 환경이다. 마산의 항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항쟁을 증폭시켰던 데는 『국제신보』와 『부산일보』, MBC부산문화방송의 역할이 컸다. 1958년에서 1961년까지 『국제신보』 사회부장으로 일했던 3년의 시기를 “4.19 정국”<sup>12)</sup>이었다는 이광우의 회고는 당시 부산 지역 언론계의 동향을 짐작하게 한다.

60년 들어 3.15 의거 이전에도 부산의 젊은이들이 여러 차례 산발적인 거리 시위를 주도하고 있었다. 영도다리가 들려 있는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내리면 갑자기 스크럼을 짜고 ‘민주주의’를 외치며 달려간다거나, 동아극장 오후 상영이 끝나면 영화보고 나오는 관객 속에 섞여 있다가 기습적인 시위를 한다거나 하는 식이었다. 시위대는 대체로 고등학생들이거나 야당 청년 당원들이었다. 기습 시위의 주동자는 미리 신문사로 전화를 해서 거사 계획을 알려주었다. 그러면 나는 기사를 미리 파견해 두었다가 시위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생생한 기사를 작성하게 하였다. 비록 작은 기사지만 국제신보의 특종이 이어졌고, 시민들의 머리 속에 ‘국제신보는 민주주의를 알리는 신문’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갔다.<sup>13)</sup>

당시 야당지로 분류되던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의 발행부수가 여당지를 압도하던 가운데, 『국제신보』는 여론의 성장을 복돋

---

12) 이광우, 2003, 『회고와 추억』, 자가본, 136쪽. 당시 논설위원으로 일하면서 1958년 11월부터 이일구라는 필명으로 「백만 독자의 정치학」을 연재했던 이종률은 세 차례(1958.11.30~12.2)에 걸쳐 ‘민족혁명론’을 개진하는 등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앞자리에 섰다.

13) 이광우, 위의 책, 139쪽.

우며 국가를 여론의 법정으로 끌고 나왔다. 1958년 11월 민족혁명론의 연재와 이병주의 주필 영입에서 보듯이, 『국제신보』는 기존의 국가기구의 권력행사방식을 단순히 수정하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 장치들을 창출하는 식의 변화를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비밀스럽고 독단적인 국가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토론하고 독서하는 잠재적인 공개장<sup>14)</sup>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던 자유당 정권의 위협성을 비판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알리는 신문”으로 평가받았다. 전국 일간지 가운데 『국제신보』에 게재된 4월혁명시가 가장 많다는 점 또한 이와 관련 있다. MBC부산문화방송의 자매회사인 『부산일보』 또한 다분히 야당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방송매체 또한 부산의 신문매체와 마찬가지로 자유당 말기의 민의를 대변하면서 마산의거를 맞아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MBC부산문화방송의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마산과 부산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4월혁명을 고무하는 계기가 되었다.

드디어 一九六〇年 三·一五選舉日이다.

내가 경영하는 釜山文化放送의 방송 마이크를 신문사 社長室로 옮겼다. 신문과 방송의 취재망을 하나로 묶어 그 능력을 올리는 한편 신속하고 소상한 狀況放送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이 선거는 正·副統領을 선출하는 것이었고 더구나 기왕에 선거 부정을 보아온 터여서 시민들의 관심이 날카롭게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들의 관심에 응해주는 의미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가 절실했던 것이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자 곳곳에서 산발적인 웅성거림이 있는 듯 하더니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쫓기가

14) J.키인, 주동환 외 옮김, 1995, 『언론과 민주주의』, 나남출판, 48쪽.

馬山에서 거센 물결처럼 터져 나왔다. 그러자 馬山에 특파돼 있는 記者로부터 提報가 들어왔다. 개표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울분을 터뜨려 파출소를 습격해서 기물을 부수고 불을 지르자 경찰관이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아 사상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때 이미 나의 釜山日報 社長室에는 文化放送의 마이크가 설치되고 직통전화는 물론 다른 모든 전화선을 집결시켜 나의 진두지휘하의 비상체제로 옮겨져 있었다. 이 報道가 文化放送의 第一聲으로 전파를 타자 소상한 상황을 알리는 시민들이 방송국으로 몰려들어 아우성이었다. 방송원은 밀폐된 釜山日報 社長室이라는 걸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이 文化放送의 제일 보가 나가 채 一分도 못돼서 日本의 NHK가 우리 방송을 따서 방송하는 것을 듣고 나는 쾌감을 느꼈다.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文化放送局에는 關係要路에서의 빗발치는 전화벨이 울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서 무위로 끝났다. 나중 慶南警察局長이 방송국을 거쳐 나에게로 찾아와 그러한 방송의 증지를 호소했으나 그때 이미 방송이 끝날 무렵이었고 나는 馬耳東風格으로 흘러버렸다. 나는 오랜 정치보복을 받아온 宿怨을 이 國家非常時에 통쾌한 言論으로 푼 것이 된 셈이다.<sup>15)</sup>

방송매체의 속보성과 동시성은 신문보다도 훨씬 즉각적으로 청취자들의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MBC부산문화방송은 경찰당국으로부터 보도를 중지하라는 통고를 받는 동시에 사옥에 상주하는 형사수가 증가되면서 감시가 한층 강화되었다.<sup>16)</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산과 부산의 상황을 지체 없이 보도함으로써

15) 김지태, 1976, 「四一九의 불꽃」, 『나의 履歷書』 한국능률협회, 196~197쪽과 자명김지태전기간행위원회 엮음, 2003, 「사일구혁명을 점화한 민주 언론의 영웅들」, 『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았다』, 석필, 2003, 382~389쪽을 참고할 것.

16) 전응덕, 2002, 『이 사람이 목에 힘을 빼게』 중앙M&B, 73~91쪽.



청취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sup>17)</sup> 당시 KBS가 4월 19일의 상황을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22일부터는 「계엄사령부의 시간」이라는 코너를 신설하여 계엄사령부의 요망사항을 방송했던 상황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sup>18)</sup> 이처럼 4월혁명 시기 이승만 정권에 적대적이었던 부산 지역의 신문 방송매체는 여론을 이끌면서 혁명을 추동하였다. 청취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의 감시와 협박이 잇따랐으나, 시민을 어둠 속에 가둬 놓은 국가로부터 해방시키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수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燦發한 憤怒가/怒濤와 같이 쏟아져나온 거리/오— 獨裁는 물러갔다./씩은 등걸에 피에 젖은 새얼굴/民主主義는 되살아났다.///잘 싸웠다. 이겼다./學生이여! 市民이여! 新聞이여!/오! 腐敗에 뿌리박은 獨裁는 물러났다.///또 하나의 解放을 謳歌하며 도는 輪轉機는//鎮魂歌란다.

— 김태홍, 「獨裁는 물러갔다」 가운데서<sup>19)</sup>

- 
- 17) 김영출, 1960.12, 「MBC釜山文化放送의 一年」, 『放送』 송년호, 대한방송사업협회, 20~21쪽.
- 18) KBS는 4월 23일에 이르러서야 계엄사령부의 통제로부터 해방되었다. 4월 19일 당시의 방송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일부 학생들과 시민들의 이성을 잃은 행위는 지금 여러분의 부모형제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6·25남침의 민족적인 비극을 겪어온 동포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우리의 지나친 행동으로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국가와 동족의 재산이 부서진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까지 방송을 들으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학생과 시민들의 데모를 가라앉히기 위해 오늘 오후 다섯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학생이 있으면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데모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타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1960.7, 「특집 4월 민주혁명과 방송」, 『放送』 여름호, 대한방송사업협회, 8~13쪽.
- 19) 『부산일보』, 1960.4.27, 1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혁명시를 수록한 때가 “피의 화요일”을 지난 4월 23일인 데 반해,<sup>20)</sup> 『국제신보』가 마산 의거를 노래한 최초의 시 「베꼬니아의 꽃잎처럼이나……」를 수록한 것은 3월 28일이다. 이는 부산 지역 미디어 환경이 혁명문학의 생산과 향유를 이끄는 발생론적 조건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산에서 4월혁명문학이 주도적으로 창작될 수 있었던 까닭은 한국전쟁기 이후 문화지형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성장, 청년학생운동 조직의 결성과 활동, 국가의 의지에 굴복하지 않은 언론 방송매체의 공론장 형성과 여론 주도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 2. 4월혁명시의 생산과 신문매체의 기동성

4월혁명 시기 『국제신보』와 『부산일보』는 서울의 일간지와는 달리 사실적 취재와 대담한 논평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sup>21)</sup> 현재 매체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민주신보』를 제외하고, 『국제신보』 『부산일보』를 중심으로 1960년에 발표된 혁명시의 창작성과를 살펴보자.

① 1960년 『국제신보』 소재 4월혁명시 일람

| 번호 | 지은이 | 제 목                                   | 발표일자    | 비 고 |
|----|-----|---------------------------------------|---------|-----|
| 1  | 김춘수 | 베꼬니아의 꽃잎처럼이나……<br>—馬山事件에 犠牲된 少年들의 靈前에 | 3.28,2면 |     |
| 2  | 정공채 | 하늘이여                                  | 4.14,1면 |     |
| 3  | 이영도 | 哀歌—故金朱烈君 靈前에                          | 4.19,4면 |     |

20) 안 철, 「서러운 골목」, 『동아일보』 1960.4.23; 강명희, 「오빠와 언니가 왜 피를 흘렸는지…」 『조선일보』 1960.4.23.

21) 김대상, 1981, 『釜山慶南言論使研究』, 대왕문화사, 217~238쪽; 박경장 편저, 1967, 『釜山言論界現況』, 부산언론계편찬회, 12~32쪽.

| 번호 | 지은이 | 제 목                                   | 발표일자     | 비 고       |
|----|-----|---------------------------------------|----------|-----------|
| 4  | 강남주 | 十九歲 少年 죽음—合同慰靈祭에 부쳐                   | 4.24,3면  | 독자투고      |
| 5  | 이주홍 | 꽃들에 부치어<br>—四·一九에 저버린 젊음들의 靈前에        | 4.24,4면  |           |
| 6  | 김용호 | 鎮魂歌                                   | 4.25,4면  |           |
| 7  | 박양균 | 無名의 힘은 眞實하였다<br>—四·一九를 前後한 時局에 말한다    | 4.27,2면  |           |
| 8  | 조 순 | 秩序의 隊列로                               | 4.28,4면  |           |
| 9  | 오충수 | 祈願—風化되어가는 碑의 音聲                       | 4.30,4면  | 해동고       |
| 10 | 신소아 | 希望의 길로                                | 5.1,4면   |           |
| 11 | 장하보 | 頌歌                                    | 5.2,4면   |           |
| 12 | 정공채 | 또다시 젊은 獅子들의 怒한 「데모」를                  | 5.4,4면   |           |
| 13 | 김요섭 | 오월과 빈 객상                              | 5.5,4면   | 동시        |
| 14 | 최일수 | 사월의 별이 되어라                            | 5.7,4면   | 동아고       |
| 15 | 최중두 | 빨래—第二共和國에 부쳐                          | 5.12,4면  | 독자투고      |
| 16 | 오난옥 | 그 하늘 아래서                              | 5.14,4면  | 부산대       |
| 17 | 류재형 | 四·一九가 다녀간 거리에서                        | 5.15,4면  |           |
| 18 | 김태홍 | 遺書—죽은 學生은 말한다                         | 5.19,3면  |           |
| 19 | 손동인 | 餘恨—아직은 香불 사르지 말라                      | 5.19,4면  |           |
| 20 | 김민한 | 慰靈詞                                   | 5.21,4면  | 부산대       |
| 21 | 이동섭 | 五月의 窓을 열면—피뿌린 한 달은 지나고                | 5.23,4면  |           |
| 22 | 고두동 | 늪름한 꽃들—義學負傷學徒들의 慰問 을在釜文<br>友들과 함께 마치고 | 5.30,4면  |           |
| 23 | 이상민 | 오월의 하늘처럼                              | 6.18,4면  | 부산대       |
| 24 | 송석래 | 죽은 旗手의 가슴에 핀 薔薇꽃                      | 6.20,4면  |           |
| 25 | 박남수 | 불씨가 삭기 전에—北韓 兄弟들에 주는 맺세지              | 6.25,4면  |           |
| 26 | 장수철 | 비오는 밤에                                | 6.25,4면  | 『소년극제』제5호 |
| 27 | 이상호 | 함께 흐를 강물 아닌가                          | 7.2,4면   | 동국대       |
| 28 | 박두진 | 우리들의 八·一五를 四·一九에 살자                   | 8.15,4면  |           |
| 29 | 이동섭 | 韓國의 脈搏—열다섯 八·一五 前後에 말한다               | 8.16,4면  |           |
| 30 | 한 열 | 불꽃놀이—第二共和國 序曲                         | 10.21,4면 | 부산대       |
| 31 | 서경봉 | 대열(隊列)                                | 11.5,4면  |           |
| 32 | 강인숙 | 墓地에서—몇의 靈前에 부치며                       | 11.11,4면 | 부산여고      |
| 33 | 박수일 | 풍선                                    | 11.26,4면 | 경남고       |
| 34 | 박창문 | 푸른 祖國이여                               | 12.2,4면  | 부산대       |

## ② 1960년 『부산일보』 소재 4월혁명시 일람

| 번호 | 지은이 | 제 목  | 발표일자    | 비 고                                |
|----|-----|--|---------|------------------------------------|
| 1  | 김태홍 | 馬山은!   | 4.12,1면 |                                    |
| 2  | 홍두표 | 꽃봉오린채 떨어진 꽃송이들이여<br>—馬山事件의 銃彈에 쓰러진 學生들의 靈柩             | 4.13,4면 |                                    |
| 3  | 김태홍 | 祖國이여!—合同慰靈祭에 붙임  | 4.24,3면 | 4.26. 3면에서 군<br>검열로 삭제된 부<br>분을 삽입 |
| 4  | 김태홍 | 독재는 물리겠다   | 4.27,1면 |                                    |
| 5  | 정진업 | 系圖—四月十九日의 招魂을 위하여                                      | 4.27,4면 |                                    |
| 6  | 손동인 | 學徒義學의 노래   | 4.28,1면 |                                    |
| 7  | 홍준오 | 그대 冥福만을 빌겠노라<br>—門生 故姜壽永君의 芳魂에 붙임                      | 4.30,2면 | 경남공고 교사                            |
| 8  | 김충효 | 오호! 장하거니 내 아들이<br>—4·19에 죽은 학생 어머니를 대신하여               | 4.30,4면 | 『소년부일』<br>제61호                     |
| 9  | 이주홍 | 묵은 것의 잿더미위에 다시 太陽은 쏜는다—<br>永遠의 感激, 四月二十六日              | 5.1,4면  |                                    |
| 10 | 홍준오 | 鎮魂의 노래   | 5.4,4면  |                                    |
| 11 | 정진업 | 노래 속에 나오는 「니이나」처럼                                      | 5.5,4면  |                                    |
| 12 | 김상욱 | 思母曲  | 5.8,4면  |                                    |
| 13 | 육교량 | 감지 못하는 눈과 눈<br>—4.19 犧牲 學生慰靈祭에 부침                      | 5.18,4면 |                                    |
| 14 | 장하보 | 여기는 아무도 오지 말라<br>—四·二六 學生義學의 날에 犧牲된 英魂의<br>慰靈塔 詩文을 爲하여 | 5.19,1면 |                                    |
| 15 | 변양철 | 하와이섬 앞 바다에서 낚시질하는 老人에게                                 | 9.19,4면 |                                    |

인용문 ①과 ②에서 알 수 있듯이, 혁명시의 창작 주체는 전문 시인과 학생, 시민이다. 전문시인으로는 김태홍, 손동인, 이동섭, 이주홍, 장하보, 정공채, 정진업, 홍준오, 고두동, 김상욱, 김용호, 박양균, 김요섭, 김춘수, 박남수, 박두진, 서정봉, 신소야, 이영도, 장수철, 조 순, 홍두표가 기동성 있게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들 가운데 김태홍이 4편, 손동인, 이동섭, 이주홍, 장하보, 정공채, 정진업, 홍준오가 각각 2편, 박양균과 김요섭이 1편을 실었다. 박양균, 김요섭, 박두진, 박남수와 장수철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산 경

남 지역에 연고를 둔 시인들이다. 이를 통해 지역매체에서는 토박이 문인이든 출향 문인이든 이 지역과 연고를 둔 시인들의 매체 투고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두동, 홍준오, 장하보, 김상옥, 서정봉, 이영도 등의 시조시인뿐만 아니라 아동문학가 손동인과 김요섭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 갈래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외에 오충수, 최일수, 강인숙, 박수일은 고등학생이며, 강남주, 오난옥, 김민한, 이상민, 이상호, 한 열, 박창문은 당시 부산 지역의 대학생이다. 나머지 김충효, 류재형, 변양철, 송석래, 옥교량, 최종두는 일반 시민이거나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전체 49편 가운데 학생과 시민들의 작품이 17편으로, 30%를 웃돌고 있다는 점은 4월혁명에 대한 당대의 열기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의 시는 당시 언론매체에서 생산된 공적 담론을 되풀이함으로써 기성 시인들의 구조적인 경향에서 한 발짝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지역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문학적 응전들을 통해 신문 매체가 4월혁명문학의 대중적 생산과 유통에 기여한 바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신문 방송매체에 가해진 검열의 흔적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진업의 「노래 속에 나오는 「니이나」처럼」과 김태홍의 「祖國이여!—合同慰靈祭에 붙임」에서 당시 정부 당국의 보도관제(報道管制)<sup>22)</sup>에 따른 군검열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부산일보』 4월 24일치 3면에 수록된 김태홍의 시는 군검열로 삭제되었으나 4월 26일 편집자 주를 달아 다시 수록되기도 했다.

22) 당시 국제신문에 가해진 검열에 대해서는 이광우, 2003, 『회고와 추억』 자가본, 140~141쪽. 보도관제는 5월 10일부터 폐지되었다. 「10일부터 보도검열폐지」, 『국제신보』 19060.5.10, 1면.

네 가난한 품속에서  
그래도 엮어보는 꿈도 마지막 목숨까지도  
못난 祖國이여.  
네 無知한 銃뿌리에  
無慘히 짓밟혀 죽던 날을  
祖國이여...  
이날을 銘心하라

【註 이 詩句는 二十四日字 夕刊 金泰洪氏의 「祖國이여」中  
軍檢閱에서 삭제된 部分입니다. 讀者를위해 挿入해 드  
립니다.

인용시는 인쇄매체에 가해진 정부기관의 사후검열의 흔적을 잘 보여준다. 두루 알다시피 국가는 미디어를 정부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위해 훈령, 협박, 금지, 체포와 같은 위협적 방법을 동원한다. 이러한 정치적 억압의 기술에는 사전금지와 사후검열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사전금지는 전화를 통한 단순한 요구나 경고에서 강제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침 하달에 이르는 공식적·비공식적 절차를 포함한다. 반면 사후검열은 간행물의 최초 발간에서 배부까지의 전 과정에 적용된다. 신문의 배포금지와 삭제, 소각, 압수가 그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신문사나 방송국의 폐쇄조치로 나아갈 수 있다.<sup>23)</sup> 4월혁명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두 가지 억압 수단이 결합되어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KBS와 MBC부산문화방송에 가해진 계엄사령부와 관할경찰서, 검찰의 통제는 이러한 결합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로 계엄사령부는 「계엄포고 8호」를 통해 혁명의 과정에서 작동하였던 신문 통신에 대한 검열제를 25일 새벽 5시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sup>24)</sup>

23) J.키인, 주동환 외 옮김, 앞의 책, 123쪽.

다음으로, 4월혁명시는 4월 후반부터 5월 중순까지 신문매체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창작 월별 편수를 보면, 3월 1편, 4월 16편, 5월 19편, 6월 4편, 7월 1편, 8월 2편, 9월 1편, 10월 1편, 11월 3편, 12월 1편이다. 단연 4월과 5월에 집중된다. 6월 이후의 창작 성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혁명시의 창작과 향유가 문단의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4월혁명시는 1960년 4월과 5월에 걸쳐 가장 역동적으로 창작되고 향유된, 단발적인 대유행(boom)의 문학이라 규정할 수 있다. 신문매체에 발표된 이들 혁명시는 혁명기념시집이 발간되는 5월 중순부터 7월 초순까지 재생산되다가 이후부터는 아예 의례화되는 과정을 밟는다.

4월혁명이 문학계에 미친 파장은 문단의 혁신 논리로 발전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실제로 ‘만송족’으로 불리며 자유당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문학인들의 자기반성이 부재했다는 점은 문학사회의 동향을 잘 보여준다. 당시 자유당 정·부통령 선거 중앙대책위원회의 지도위원<sup>24)</sup>으로 이름을 올린 김말봉<sup>26)</sup>, 모윤숙, 박종화, 이은상의 공개적인 자기반성은 없었다. 하

24) 「25일부터 通禁還元 新聞檢閱制도 廢止」, 『국제신보』1960.4.24, 호외.

25) 이들 외에 강인택, 권승렬, 공진항, 김동성, 김두현, 김연준, 김용진, 김활란, 김현철, 배은희, 백낙준, 백성욱, 유석창, 유호준, 윤치영, 이규갑, 이선근, 이운영, 이재만, 임영신, 장 형, 전규홍, 조동식, 조영식, 최찬익, 홍성하 등 교육계와 문화예술계의 명망가 인사들이 지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신문』, 1960.1.26, 1면 광고.

26) 선거에 참여한 문인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권의 회유가 깊숙하게 작용한 흔적이 보이는데, 김말봉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김말봉의 당시 사정에 대해서는 박경리의 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만송(晩松)족으로 지탄이 극심했던 말년, 말년이라기보다 돌아가시기 직전의 참담했던 선생님 처지를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4·19의 피 흘리는 학생들이 수없이 실려 들어오던 역전의 옛날 그 세브란스병원, 그곳에 입원에 계시던 선생님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그 분을 병원으

지만, 문단 일각에서는 이들에게 자숙하거나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sup>27)</sup>

① 記一四一九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李一부끄러운 생각 때문입니다. 外國의 예를 보면 歷史的인 事件의 선두엔 으레 知性人과 文人들이 서는 법입니다. 더구나 권력의 橫暴에 대해서 自由를 쟁취하려고 나선 四一九와 같은 事態는 응당 文人이나 知性人들이 그 선두에 섰어야 했을 것입니다. (...중략...)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惡과 權力의 橫暴에 가담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글을 쓰는 한 사람으로 共同의 責任意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데, 四一九 사태가 일어나 세상이 뒤바뀌니까 이 겁쟁이들이 新聞 四面을 장식하고 있더군요. 언제부터 그렇게 용기가 있었고 언제부터 그렇게 자유를 사랑했었는지 이것은 정말 피차에 미안스러운 일입니다. 政治家도 양심이 있어 反省하는 이때에... 이런 일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親日派 文人들이 解放後에 꼭 그랬습니다. 六·二五 후에 附逆한 文人들이 역시 그러했습니다.

---

로 찾아갔을 때 “내가 잘못했다, 그 놈들이 신문사 사장 자리 주겠다, 문교부 장관 자리 주겠다 하는 바람에”라는 말을 되풀이 하겠다.” 박정리, 1986, 「참회와 회한의 눈물」,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정하은 편저), 종로서적, 197~199쪽.

- 27) 「文壇의 革新淨化를 위하여」, 『조선일보』, 1960.5.7, 4면. 7일치 조간과 석간에 걸쳐 게재된 설문조사를 통해 당시 문학계의 동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설문 내용은 다음 세 가지다. ①해체론이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문중, 자유문협, 한국문협 등 문학단체의 거취에 대한 견해 여하, ②어용작가들의 거취에 대한 견해 여하, ③현 예술원에 대한 견해 여하. 이희승, 박화성, 조병화, 김남조, 최정희, 박영준, 주요섭, 고석구, 김우종가 답변을 했는데, 대체로 ①에 대해서는 해체를, ②에 대해서는 자숙을, ③에 대해서는 개혁을 요구했다.



지조도 없고 양심도 없고 심장도 없는 「박쥐」들입니다. 이것이 韓國의 文學人인가 생각할 때 차라리 붓을 꺾고 지게라도 지고 싶은 심정입니다.<sup>28)</sup>

② 「아 사월혁명의 여웅들이여!」라고 우리는 노래부를 수는 있다. 그러나 목숨을 한마디의 부르고 싶던 구호(口號)와 바꾸는 일은 주저한다. (...중략...) 사월의 영령들을 노래할 자격만이라도 가진 자가 몇 사람이나 기성세대에 있을 것인가. 그렇게 노래 부를 자격도 못가진 자들이 그들의 영전(靈前)에서 향불을 피우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 총알을 넣은 자보다 더 증오할 일이다.<sup>29)</sup>

①에서 정비석은 4월혁명에 대한 “침묵”의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선두”에 서지 못한 “부끄러운 생각”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4월혁명 이후 자유당 정권에 부역했던 문인들이 신문지면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행태를 “박쥐”에 빗대어 비판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침묵”이 부끄러움에 대한 자기표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붓을 꺾고 지게라도 지고 싶은 심정”으로 부끄러움을 토로하고 있는 정비석 또한 나라잃은시대 말기 조선문인보국회의 중견작가로 파시즘 이데올로기에 동조한 전력이 있다. 자격 시비는 ②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천상병은 “노래 부를 자격도 못가진 자들이 영전(靈前)에서 향불을 피우고 있다”면 “목숨”을 “구호(口號)와 바꾼 영령들의 가슴에 “총알을 넣은 자보다 더 증오할 일”이라 말한다. 이 또한 부끄러움에 대한 인식이며, 혁명대열에 무조건 편승하거나 무임승차하여 과오를 덮으려는 문학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당시 문학인들의, “대

28) 정비석, 「말해야 할 사람은 地下에 있다-文人들은 묵묵히 反省하라」, 『부산일보』, 1960.5.3,4면.

29) 천상병, 「四月革命的 피는 씻을 수 없다」, 『국제신보』 1960.5.11.4면.

중의 정신적 저변에 흐르는 시대적 진실성을 증명하는 의지의 결여<sup>30)</sup>를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4월혁명이 문학사회에 던진 충격과 문학인의 자기 역할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도 불구하고, 문학인들은 새로운 문학적 실천을 보여주지 못했던 셈이다. 김춘수가 조지훈의 시 「歸路」(『사상계』 1960년 10월치)의 한 구절을 빌어 “革命은/소낙비처럼 산을 넘어 가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비판했듯이,<sup>31)</sup> 4월혁명문학은 충분한 내적 계기와 동력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기간 생산되는 데 그쳤다고 볼 수 있다.

### 3. 『힘의 선언』과 경남·부산 지역성

신문매체와 학보나 교지에 수록된 4월혁명시는 즉각적으로 기념시집으로 갈무리되면서 재생산되었다. 『뿌린 피는 永遠히』(한국시인협회 엮음, 서울:춘조사, 1960.5.19), 『不滅의 旗手』(김종운·송재주 엮음, 서울:성문각, 1960.6.5), 『抗爭의 廣場』(김용호 엮음, 서울:신홍출판사, 1960.6.10), 『피어린 四月의 證言』(이상로 엮음, 서울:연학사, 1960.6.10), 『學生革命詩集』(교육평론사 엮음, 서울:효성문화사, 1960.7.10)이 바로 그것이다. 대체로 추모비를 세우거나 위령제가 한창이던 5월 중순에서부터 7월초에 걸쳐 있다. 4월혁명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나 해석은 결여된 채 학교제도나 사회단체 주도로 이루어진 기념행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신속

30) 천상병, 「四·一九以前の文學의 贖罪—왜 現實의이 되지 못했던가?」, 『자유문학』 1960년 9월호, 200쪽. “韓國의 作家들은 (물론 나 自身도 포함해서) 四一九를 前後한 時期를 겪으면서 <그의 作品>도 없었고 <群衆의 行列>에도 없었습니다. 창피스러운 體面입니다. 그러나 더 창피스러운 일은 그 후에 하나 追加되었습니다. 四·一九를 마치 저희들의 힘으로 遂行한 것처럼 날뛰는 群衆들이 擡頭한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누구라고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31) 김춘수, 「革命은 소낙비처럼 지나가고」, 『동아일보』 1960.12.14.4면.

한 기획 출판이라 볼 수 있다.<sup>32)</sup> 이러한 기념시집은 1983년 신경림에 의해 『4月革命紀念詩全集』으로 선별적으로 재생산되면서 혁명시의 향유를 부추기고자 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러한 선택과 배제가 4월혁명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앞에 든 혁명기념시집은 모두 서울에서 출판되었으며, 이 과정에 지역에서 발행한 것은 간과되고 말았다.

『힘의 宣言』은 정 천이 엮고, 부산의 해동문화사에서 1960년 5월 30일 발행하였다. 여태껏 학계에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 기념시집이 『뿌린 피는 永遠히』에 이어 부산에서 발행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산의거에서 촉발된 경험을 동시적으로 공유했던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어 강한 지역 연고성과 4월혁명에서 부산 경남 지역이 갖는 위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 번호 | 지은이 | 제 목   | 비 고           |
|----|-----|---|---------------|
| 1  | 정 천 | 序詩<br>—長詩 「총알은 눈이 떨어다」의 序詩에서                          |               |
| 2  | 김태홍 | 馬山은!  | 『부산일보』 412,1면 |
| 3  | 오난옥 | 그 하늘 아래서  | 『국제신보』 514,4면 |
| 4  | 박세운 | 우리의 눈은 감을수 없다<br>—四月에 꽃진 英靈들의 말                       |               |
| 5  | 정공채 | 또다시 젊은 獅子들의 怒한 데모를                                    | 『국제신보』 544면   |
| 6  | 신대하 | 단 몇개의 조각돌   |               |
| 7  | 이주홍 | 묵은것의 젓더미위에 다시 太陽은 쏜는다<br>—永遠의 感激 四月二十六日               | 『부산일보』 51,4면  |
| 8  | 최중두 | 빨래—第二共和國에 부쳐  | 『국제신보』 512,4면 |
| 9  | 정진엽 | 노래속에 나오는 「니이나」처럼                                      | 『부산일보』 55,4면  |
| 10 | 김상호 | 朱烈君 靈前에   |               |
| 11 | 장하보 | 여기는 아무도 오지 말라<br>—四·二六學生義學의 날에 犧牲된<br>英靈의 慰靈塔 詩文을 爲하여 | 『부산일보』 519,1면 |

32) 이순옥, 2007, 「4월혁명시의 매체적 기반과 성격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5집, 370~374쪽.

| 번호 | 지은이 | 제 목                       | 비 고            |
|----|-----|---------------------------|----------------|
| 12 | 손동인 | 餘恨—아직은 쟁불 사르지말라           | 『국제신보』 5.19.4면 |
| 13 | 김민한 | 慰靈詞                       | 『국제신보』 5.21.4면 |
| 14 | 박창문 | 지금은 말할수 있느냐               |                |
| 15 | 정 천 | 詩의 宣言<br>—四月革命記念詩集 끝에 부치다 |                |

시집에는 수록시편들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비고’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부산 지역 신문 매체에 발표되었다. 발행지가 부산의 해동문화사이고 필진들의 대부분이 부산·경남에 지역적 연고를 두고 있는 까닭에 출처가 불분명한 시는 『민주신보』나 고등학교 교지, 학보와 같은 지역매체에 발표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실제로 『抗爭의 廣場』에 수록된 정영태의 「피로 뿌린 시 來日은 꽃피리」와 금성고 전재일 학생의 「언제 다시 새 하늘이」의 발표지가 『민주신보』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힘의 宣言』은 오롯이 부산 지역 매체에서 생산된 시편들을 묶었으며, 필진 또한 부산 지역에 한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부산대 학생인 오난옥<sup>33)</sup>과 박창문<sup>34)</sup> 외에 필진의 성격이 불분명한 박세운, 신대하, 김상호는 부산 시민이거나 학생임이 분명하다.

기존의 기념시집 목록에서뿐만 「한국현대시집총목록」에서조차 그 실체가 알려지지 않았던 이 시집은 기념시집으로는 보기 드문 지역 대표성, 출판의 기동성, 혁명에 대한 역사적 화석화에 맞서는 새로운 담론 창발과 재구성을 위한 기폭제로서의 상징성<sup>35)</sup>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각별하다.

33) 『국제신보』(5월 14일치)에 발표된 오난옥의 이 시는 부산대학교 문학회가 발간한 『釜大文學 제8회 문학제기념작품집』(부산대학교출판부, 1960.10)에서 다시 갈무리된다. 이를 통해 대학사회에서 혁명시는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34) 박창문은 『국제신보』 12월 2일치에 「푸른 祖國이여」를 발표하였다.

35) 박태일, 2007, 「1960년 경자마산의거가 당대시에 들앰 모습」,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81~82쪽.

### Ⅲ. 4월혁명문학과 민주주의적 동원

#### 1. 증언시와 현장성

모든 문학작품은 어떤 면에서는 기념이 되긴 하지만, 경우시(Occasional Verse)는 개인적인 경우가 아니라 공공 또는 사회적 계기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르다.<sup>36)</sup> 4월혁명문학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시인들은 4월혁명이라는 대중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창작에 이용한다. 1960년 당시 4월혁명은 구체성과 현장성을 뚜렷하게 지닌다. 오늘날까지도 후일담이나 회고담, 기념이나 추도, 저항의 문맥에서 거듭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항쟁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기 보다는 대체로 애도와 추념, 선언적 수사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갈래의 특성상 소설이나 수기문학에 견주어 증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담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과 역사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4월혁명의 본질을 가장 오롯이 드러내는 시적 유형은 증언시다. 물론 혁명의 전개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증언시는 드물다. 기동성 있는 신문매체를 통해 가장 먼저 발표된 김춘수의 아래 시는 증언의 실감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각별하게 읽힌다.

南城洞派出所에서 市廳으로 가는 大路上에  
또는  
南城洞派出所에서 北馬山派出所로 가는 大路上에  
너는 보았는가... 뿌린 핏방울을,  
베고니아의 꽃잎처럼이나 선언했던 것을...

36) Alex Preminger-T.V.F.Brogan, co-ed., The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851.

一九六〇年 三月 十五日

너는 보았는가… 夜陰을 뚫고

나의 고막도 뚫고 간

그 많은 銃彈의行方을…

南城洞派出所에서 市廳으로 가는 大路上에서

또는

南城洞派出所에서 北馬山派出所로 가는 大路上에서

이었다 끊어졌다 밀물치던

그 아우성의 怒濤를…

너는 보았는가… 그들의애떤 얼굴모습을…

뿌린 핏방울은

베꼬니아의 꽃잎처럼이나 선연했던 것을…

— 김춘수, 「베꼬니아의 꽃잎처럼이나…… — 馬山事件에  
犧牲된 少年들의 靈前에」

인용시는 부제 ‘馬山事件에 犧牲된 少年들의 靈前에’를 보아 추  
념시로도 볼 수 있지만, 독자들에게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제시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로 가는 大路上에서”와 말줄임표를 반  
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화자의 분노  
와 충격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화자의 실제  
경험을 살려낸 이 시는 “너는 보았는가…”라는 시구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으로써 마산의거에 대한 독자들의 공감을 확보하고자  
했다. 『민주신보』에 발표된 정영태의 「피로 뿌린 시 來日은 꽃피  
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보았다/최후탄이 처  
박한 김주열 군의 얼굴을/그 위에 덮인 피묻은 태극기를”에서 드  
러나는바, 이러한 현장에서 증언하는 방식을 통해 4월혁명의 희생과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국면을 효과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것이다.

四二九三年  
二月二十八日  
大邱中央通에서  
慶北高等學校  
검은隊列은  
學園의 自由와  
民主主義 守護를 부르짖었을때  
나는 자꾸 感傷에 젖어 눈물이 목구멍을 메웠다.  
(...중략...)

釜山에서는 東萊高校 慶南工高校  
西面에서 凡一洞에서  
光州에서 大田에서 仁川에서 淸州에서  
晋州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린것이 大學教授들이

아! 얼마나 魅力的인 學生이라는 이름이야  
아! 얼마나 榮光인 學生의 긍지이었더냐  
그들은 불길처럼 터졌다  
氷花처럼 싸늘하게도 외쳤다.  
— 박양균, 「無名의 힘은 眞實하였다—四一九를 前後한 時  
局에 말한다」 가운데서

4월 26일 오전 11시 하야 성명을 듣고 쓴 것으로 부기되어 있는 인용시는 크게 두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이 시는 대구의 2·28민주항쟁에서 3월 15일의 마산 상황, 4월 11일 김주열의 죽음, 4월18일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 4월19일 전국 대학생과 고등학생, 시민이 참여한 혁명의 전개과정을 형상화하였다. 그런 다음,

혁명의 의의와 “無名(무명)의 힘”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화자의 결의를 되새겨 놓았다. 그런데도 한 편의 시에 항쟁의 긴 과정을 담으려 했던 까닭에 증언의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4월혁명을 노래한 대부분의 시가 혁명의 영속성과 낙관적 전망, 희생자의 헛되지 않은 죽음의 의미를 지나치게 전경화함으로써 애초부터 증언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문학에서는 혁명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억투쟁으로서 증언의 존재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낸 시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문학은 역사의 잔재가 아니다. 문학을 오로지 역사의 잔재로만 본다면 더욱 폭넓고 본질적인 역사적 차원을 간과하는 것이다. 이 역사적 차원은 그 출처가 단순히 역사의 기록으로서가 아니라 예술작품으로서 매개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예술작품은 그 자체로 단순한 역사기록의 진술을 넘어선다. 심미적 구성물로서의 예술작품은 역사현실에 반응하며 그 정신세계의 구조를 포함하여 현실을 판별하고 더 나아가 현실에 대해 비판을 가하거나 거부하며 무엇보다 현실을 보완할 수도 있다.<sup>37)</sup> 즉 문학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4월혁명 이전 한국 작가들이 신비적인 비현실관을 지니고 있었고, 혁명의 과정에서도 그들의 정신에는 “군중의 행렬”인 현실이 정당한 위치를 잡지 못했던 까닭에 한국작가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속죄”뿐이라는 천상병의 지적<sup>38)</sup>은 설득력이 있다.

37) 호르스트 슈타인메츠, 서정일 옮김, 2000, 『문학과 역사』, 예림기획, 101~102쪽.

38) 천상병, 「四·一九 以前の 文學的 贖罪—왜 現實의 이 되지 못했는가?」, 『자유문학』 1960년 9월호.



## 2. 추도시와 혁명의 영속성

4월혁명으로 희생된 영령에 대한 애도와 추념은 후대들이 받아들여야 할 마땅한 몫이다. 4월혁명시 가운데 양적으로 가장 많은 시가 이른바 합동위령제나 영전에 바친 진혼가(鎭魂歌)나 조시(弔詩), 애가(哀歌), 송가(頌歌)다. 이는 혁명의 영속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특히 추도의 숭고한 대상으로 널리 현양되는 인물이 김주열이다.

눈에 포탄을 박고 머리엔 멧자욱에 찢겨  
남루히 버림 받은 조국의 어린 녀이  
그 모습 슬픈 호소인양 겨레 앞에 보였도다

행악이 사직을 흔들어도 말없이 견뎌온 백성  
가슴 가슴 터지는 분노 천둥하는 우뢰인데  
돌아갈 하늘도 없는가 피도 푸른 목숨이여!

너는 차라리 義의 제단에 애뎌 속죄 羊  
자욱 자욱 피 맺힌 歷史의 旗발 위에  
그 이름 뜨거운 숨결일네 퍼득이는 蒼空에!  
— 이영도, 「哀歌—故金朱烈君 靈前에」 전문

인용시는 김주열의 영전에 바친 ‘애가’ 가운데 하나다. 이 시는 추도시에서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감정의 남발과 직접적인 공분의 표출을 절조 있는 태도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 보듯이, 김주열은 마산의거에서 희생된 한 개인이 아니라 4월혁명 전과정을 통해 희생된 영령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다. “포탄”이 눈에 박히고 고문으로 “머리엔 멧자욱이 찢긴” 채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떠오른 그는 “역사”와 “義의 제단”에 바쳐진 “속죄양”이다. 그런 까닭에 살아남은 자들은 죽음의 역사적 의의를 거듭 되새기며 계승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民主의 횃불 높이 들어서  
이 나라위해 피 흘린 그대들  
祖國의 꽃송이 고히 잠드소서  
아아! 靑史에 길이 빛날  
四月十九日!  
— 김용호, 「鎮魂歌」 가운데서

「鎮魂歌」는 4월혁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전형적인 추도시다. 1연에서는 “祖國의 꽃송이”, “2연에서는 “民族의 英靈”, 3연에서는 “自由의 旗手”라 올려세움으로써 역사에 길이 빛날 4월 19일을 기념하고자 했다. 추도시는 애도의 형식 또는 내용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을 지닌다. 무엇보다도 당시 여론이나 공론에서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던 논리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을 통해서는 당시의 사회사나 정신사에 대한 인식을 엿보기 힘들다.

### 3. 정치시와 투쟁성

정치시는 억눌린 자들의 투쟁 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지배 권력에 대항하며 투쟁을 선도하는 민주주의적 동원으로서 정치문학이다. 4월혁명시에는 민주적인 투쟁을 위해 집단의 연대와 행동을 촉구하는 정치시가 지배적이다. 1950년대 후반처럼 지배자들에게 공헌하는 문학이 아니라 민주주의로 가는 시민과 학생들의 단결과 분명한 이해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파적이다.

馬山은

고요한 合浦灣 나의 故郷 馬山은

씩은 답사리 비치는 달그림자에  
抒情을 달래는 傳說의 湖畔은 아니다.

봄비에 눈물이 말없이 어둠속에 괴면  
눈동에 彈丸이 박힌 少年의 屍體가  
대낮에 漂流하는 埠頭—

學生과 學生과  
市民이

<戰友의 屍體를 넘고 넘어—>  
民主主義와 愛國歌와

목이 말라 온통 설레는 埠頭인 것이다.

파도는

良心들은 歷史에 돌아가 冥想하고  
붓은 馬山을 後世에 고발하라  
밤을 새며 외치고

政治는 凝視하라. 世界는  
이곳 이 少年의 表情을 읽어라  
異邦人이 아닌 少年의 못다한 念願들을 생각해보라고  
無數히 부딪쳐 밤을 새는  
피절은 潮流의 아우성이 있다.

馬山은  
고요한 合浦灣 나의 故鄉 馬山은  
世界로 通하는 埠頭!

씩은 답사리 비치는 달그림자에  
抒情을 달래는 傳說의 湖畔은 아니다.

陣痛이  
아우성이 少年의 피가  
憤怒의 소용돌이 속에  
또 하나의  
오—움직이는 世界인 것이다  
氣象圖인 것이다.  
— 김태홍, 「馬山은!」 전문

김태홍에게 고향 마산은 “씩은 답사리 비치는 달그림자에/抒情을 달래는 傳說의 湖畔”이 아니라 “民主主義”에 “목이 말라 온통 설레는 埠頭”이다. 이러한 인식은 마산의거에 대한 새로운 의미 규정에서 비롯된다. 마산의거를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주열의 죽음을 통해 마산을 4월혁명의 진원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고발하라”, “表情을 읽어라”, “생각해 보라”는 명령적인 어조는 독자들에게 마산의 장소성, 그러니까 “少年의 피”가 “움직이는 世界”이자 “氣象圖”임을 강하게 일깨워 준다. 이제 마산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만큼 마산의거의 의의를 간명한 비유 속에 효과적으로 담아낸 시는 드물다 하겠다.

여기에서 “붓은 馬山을 後世에 고발하라”는 문학의 정치참여에

대한 김태홍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그는 문학인의 정치 참여를 논하면서 “생명은 정치 이전에 있으며, 정치를 위한 생명이 아니고 생명을 위한 정치”<sup>39)</sup>라 강조했다. 그는 문학의 정치 참여가 선거판에서 찬조 연설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文學作業을 통한 以外の 길이 없다”<sup>40)</sup>고 본다. 그런 까닭에 “눈동에 彈丸이 박힌 少年의 屍體가/대낮에 漂流하는” 마산의거에 대해 문학으로 응전할 것을 요구한다.

① 내일을 믿자

그리고

그날을 기다려

우리 다함께 歷史의 이름으로

저 원수!

원수를 告發하자.

— 정 천, 「序詩—長詩 ‘총알은 눈이 멀었다’의 序詩에서」  
가운데서

② 命숨은 내렸다/詩人이여/일제히/武器를 들자//—(가운데  
줄임)—벗은/우리의 武器다//詩句 그것은/한字 한字가 총알이  
다.//글줄 그것은/砲列……//砲列과 砲列이 나아가는/오! 장엄한  
示威/그것은 우리의 詩다 우리의 힘이다.

— 정 천, 「詩의 宣言—四月革命記念詩集 끝에 부치다」 가  
운데서

나아가 “총”이 “법”인 나라에서 시인의 노래는 “詩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원수”, “사람 白丁”이라는 보다 노골적이고 분

39) 김태홍, 「藝術人的 政治參加」, 『국제신문』, 1960.3.24, 1면.

40) 김태홍, 「文學人的 選舉參加」, 『국제신문』, 1960.3.8, 1면.

명한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정치적인 행동을 자극하는 '분명하고 명확한 요구'로서 존재한다. “사람白丁이/사냥개를 몰아/백성을 덤이로 죽여 쌓아도/빨갱이란 꼬리표 한 장이면/오히려 罪가 功으로 바뀌는 나라”를 “고발”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정치적인 실천이 바로 정치시가 지향하는 바다.

현대문학사에서 1960년만큼 문학의 공리성과 정치성이 강조된 시기도 드물다. 정치시는 분명히 어떤 특정한 시대의 산물이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로서 독자들에게 열정적으로 수용된다. “무기”로서의 시는 문학의 정치성이 강조되던 1920년대 계급주의 시문학이 지향한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자들의 행동을 자극하는 선전 선동을 중요시하는 까닭에 정치시는 종종 비판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4월혁명을 증언시, 추도시, 정치시라는 세 묶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당대 혁명시의 지배적인 유형으로서 4월혁명이 지향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오롯이 담고 있었다. 문제는 당시의 4월혁명문학이 너무 쉽게 단명했다는 데 있다. 전문시인들이 발표한 혁명시들은 훗날 개인시집으로 갈무리되지만, 시인의 현실인식과 전망이 1960년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제 4월혁명의 경험과 기억을 재구성하여 혁명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일은 우리 세대의 몫이다. 혁명정신을 계승하는 일뿐만 아니라 당시의 각종 문학사료를 갈무리하여 4월혁명문학의 내포와 외연을 확장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 4. 아동문학과 민주공화국에 대한 기대

부산의 4월혁명문학에서 주목할 만한 갈래는 아동문학이다. 북한문학에서 아동문학집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1960.9)를 발간

하여 아동의 사상 교양을 고취시키고자 했다면,<sup>41)</sup> 우리의 경우 아동문학의 성과는 의외로 부족한 편이다. 그런 점에서 혁명 당시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동심의 눈이 예사롭지 않다.

나의 결의 책상은 비었다/「데모」가 있던 날/총알이 ○○에서  
/나의 동무를 쏘았던 것이다//우리들은/다시 평화를 찾고/새로  
공부를 시작하는 날/나의 결의 책상은 비었다//그 아이는 가난  
하였다/나는 「크레온」이랑 연필을/많이 빌려주었다/그러나 지  
금은/내가 머 많은 것을 빚진 생각이다//빈 책상의 얼굴/나는  
보고 싶다/아무도 없을 때/빈 책상위에 그리는 얼굴을 그릴까//  
선생님은 야단치겠지/내가 장난질을 한줄 알고...//그렇다!/빈  
책상에 얼굴을 그린다고/그 아이가 다시 살아오를까//내 마음  
에 사랑이 있을 때 마다/같이 그 아이의 얼굴은 그려질 것이/  
아닌가//그런 마음으로/살아있는/새 친구를 열심히 사랑하지.

— 김요섭, 「오월과 빈 책상」 전문

인용시는 혁명의 과정에서 희생된 옆자리 친구의 부재를 통해 스스로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현실에 대한 울분을 토로 하며 추상적 관념을 남발하였던 성인문학의 걱정적 수사와는 달리 “새 친구를 열심히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희생된 친구의 얼굴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러한 깨달음이 동반될 때 비로소 뜻하지 않게 죽은 친구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화자는 친구의 희생 속에서 선생님이 나 부모가 당부했을 만한 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성숙한 아

41) 이순옥, 2007, 「4월혁명과 북한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6집, 한국문학회, 373~398쪽.

동이다.<sup>42)</sup> 이 화자를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신시키는 계기가 바로 4월혁명인 셈이다. 실제로 혁명의 과정에서 초등학생 희생자가 있었다. 22일 시위대가 부산진경찰서를 습격했을 때 구경하던 박점도 어린이(당시 성남초등학교 4학년, 11세)가 유탄에 복부관통상을 입고 숨졌으며,<sup>43)</sup> 극적으로 살아난 경우도 있었다.<sup>44)</sup>

어린이날을 맞아 발표한 손동인의 동화 「민이의 부탁」<sup>45)</sup>은 이러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수작이다. 저승세계라는 흥미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이야기의 재미와 아동의 의지를 적절하게 융합시키고 있다. 작가는 부제를 달아 이 동화를 “부모님들과 같이 읽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다소 길지만 전문을 소개한다.

민이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흐르고 있는 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온 저승은 참으로 이상한 곳이 많았습니다.

어느 지옥이란 마을을 지나니 이마에 뿔이 난 무서운 귀신들이 큰 가마솥에 이승 사람들을 넣고는 불을 때고 있었습니다.

민이가 그 가마솥을 자세히 바라보니 민이네 나라 <이완용>과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도오쥬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42) 이 시기 부산에서 생산된 아동문학의 화자는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대부분 성숙한 아동이다. 부산동신 초등학교 4학년 박선희 학생의 수필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드러난다. 혁명이 끝난 후 아버지의 물음에 자매가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학교를 권 이유, 데모가 발생하고 끝난 이유, 데모의 이유, 시위대에 총을 쏘는 일이나 시위가 파출소를 습격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의 문제에 대한 딸들의 성숙한 인식을 보여준다. 박선희, 『『데모』 이야기』, 『국제신보』, 1960.5.6, 4면.

43) 「『流彈에 맞았다』朴君 遺族들이 呼訴」, 『국제신보』, 1960.4.23, 3면.

44) 부산진초등학교 3학년 박맹우 학생 또한 복부관통상을 입었으나, 5육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였다. 「살아난 銃傷少年, 十一歲의 金君 腹部貫通手術받고」, 『국제신보』, 1960.4.24, 3면.

45) 『부산일보』, 1960.5.5, 1면.



민이는 다시 안내인을 따라 또 다른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참으로 경치가 좋은 극락이란 곳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커다란 연꽃 위에 앉은 분들이 목과 두 손에는 금으로 만든 목걸이와 팔찌가 찬란하였습니다.

그분들의 얼굴 가운데는 <안중근> 의사, <손병희> 선생, <김주열> 형님, 그리고 <짚다아크>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민이는 안내인을 따라 저승의 임금이란 염라대왕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 이놈 그래도 네 죄를 모른단 말야?”

“예 그저 죄라곤 뭐 큰 게 아닙니다만 이승만 박사의 동상을 세우자고 한 것뿐이죠. 그저 살려줍소서.”

“이놈 그대 세종대왕 같은 분의 동상도 못 세우는 놈이 산 사람의 동상을 세운단 말이야? 그대 놓고도 너 이놈 잡으러 가도록 기다리고 있었어. 저 이기봉 좀 보아라. 제 죄를 제가 알고 스스로 이곳에 오면 그 죄를 가벼이 다스린다. 지옥은 면했단 말야. 정치가로서 그 정신이 됐단 말야. 여봐라! 이놈은 당장 그 지옥 똥가마 솔에 넣어 부글부글 삶아 끓여라.”

이번에는 민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이 어린 네가 여기를 어찌 왔느냐?”

“예 전 우리나라 四·一九 학생 「데모」대들이 마실 냉수를 떠 주다가 여기 계신 아저씨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허어 그것 잘못됐구나. 이놈아 사람을 똑똑히 보고 잡아 오렸는데도 아직 잡아 올 놈들이 얼마든지 있잖나……. 그래 그 「데모」는 뭇 때문에 하는 거냐?”

“한국의 정치가들은 모두 썩은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놀이터 하나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놀이

는 어른들의 흉내내기가 많았습니다. 권총놀이, 물총놀이, 딱총 놀이 이런 총놀이들이 많았습니다. 「데모」도 말하자면 이 같은 정치가들의 썩은 정치를 올바르게 잡자는 데 있었습니다.”

“어허 그놈 참 착한 놈이다. 여봐라! 애를 극락으로 데려가 거라. 근데 참 너 소망을 말해 보라. 내가 다 들어주지.”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참된 민주정치를 하게 해 주세요. 그러구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잘 보호해 주고 어린이들의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세요.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어린이 회관, 어린이 보호소, 어린이 보호사업, 어린이 공원,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극장, 그밖에 어린이를 위한 착한 일들이 많이 해 주게 부탁드립니다.”

“어허 그건 어렵잖지. 네가 착한 일을 했으니 너의 기특한 맘씨를 그대로 받아들여 새로 난 대한민국이 참된 어린이 공화국이 되게 해 주마. 그러구 너의 부모님께 너에 못지않은 훌륭한 아들을 낳게 해 드리겠다.”

“대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화는 4월혁명 당시 학생 시위대에 물을 떠 주다가 저승으로 오게 된 민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아동문학이 쉽게 노정하고 있는 계몽적 의도를 물리치고 어린이의 발언을 통해 “참된 어린이 공화국”의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민이의 부탁」은 두 가지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만나게 되는 두 마을의 풍경에 대한 묘사이다. “이마에 뿔이 난 무서운 귀신들”이 불을 때고 있는 지옥에는 매국노 이완용과 독재자 히틀러, 전범 도오조오 히데끼가 처벌을 받고 있다. 반면 광복열사 안중근과 민족지도자 손병희, 구국의 영웅 잔다르크, 민주열사 김주열이 극락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다.

명백한 선과 악의 대립 구도를 통해 민주적, 민족적, 반제국주의적 가치를 선으로, 이에 배치되는 반민주적, 반민족적, 제국주의적 가치를 악마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두 번째는 염라대왕 앞에서 독재정권의 동상을 세우는 일<sup>46)</sup>에 앞장섰던 정치인에 대한 단죄와 민이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다. 이 또한 다분히 선악의 이분법적 대립을 전제로 한다. 동상건립으로 상징되는 이승만 정권에 동조하는 정치인과 그러한 세력에 저항하다 희생된 민이의 대립을 통해 염라대왕의 심판이 바람직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때 이기봉에 대한 심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기봉은 이승만 정권에 동조하였지만 “제 죄를 제가 알고 스스로” 반성한 정치가로 간주한다. 때문에 지옥행을 면한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구원의 여지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기봉의 자살을 반성으로 읽어내는 시각을 차치하더라도 염라대왕의 심판 방식은 아동문학의 교훈성과 계몽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동화에서 민이는 투사도 아니요 나약한 동심을 지니지도 않았다. 혁명의 조력자로서, 나아가 4월혁명의 이상적 가치를 내면화한 영령 전체를 대변하는 인물에 가깝다. 민이의 소망은 “우리 정치가들이 참된 민주정치”를 하고, 어린이와 관련된 이상적 사회제도를 확립한 “복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있다. 새 시대를 이끌고 나갈 주체로서 어린이와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전망을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셈이다. “참된 민주정치”가 “썩은 정치”, 즉 비민주적인 가치에 대한 개혁적 이상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4월혁명의 지향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소망’

46) 실제로 군중들이 4월 26일 오전 파고다 공원의 이대통령 동상을 파괴하기도 했다. 「李大統領 銅像을 倒壞」, 『국제신보』, 1960.4.26, 1면. 이는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상징한다.

의 설정과 설명의 논리 정연함은 어린이의 시각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부모님과 함께 읽어 달라는 작가의 당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4월혁명을 통한 작가의 바람이 민이의 시각에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IV. 마무리

4월혁명문학은 혁명의 열기가 한창이던 짧은 시기에 즉각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었던 일종의 대유행(boom) 문학으로 그친 감이 없지 않다. 물론 4월혁명을 거치면서 1960년대 문학이 역사성과 정치성을 점진적으로 회복한 사실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4월혁명의 충격과 감동을 격정적으로 노래한 당시의 문학적 관심은 의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 편승한 측면이 강했다. 당시 문학사회가 혁명의 가치를 내적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문학적 지향과 실천에 소홀했던 것은 당대 문학인의 의식적 허약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정치사의 격랑에도 좌초되지 않는 실천적 기반의 부재를 반증하는 것이다.

4월혁명은 침묵을 강요당한 기억 가운데 하나다. 혁명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손쉽게 침묵과 망각 속으로 의례화되었던 까닭은 한국정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한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4월혁명의 기억들 가운데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삶과 경험들을 소홀하게 취급해 왔다. 그런 점에서 부산에서 생산된 4월혁명시에 주목하는 것은 문학을 통해 지역의 정치사와 사회사를 재구할 수 있는 시각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부산에서 전개된 4월혁명의 역사적 경험들을 면밀히 형상화한 시편은 의외로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시 말하면 4월혁명 기간 동

안 부산 지역에서 전개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양상과 그것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를 발견하기 어렵다. 부산 지역의 독자성을 추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산의 거의 경험에서 촉발된 4월혁명문학 일반이 가지는 특징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4월혁명시의 결정적인 창작 환경은 신문 매체가 제공하였다. 중앙 일간지에 비해 질량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작품을 생산했다. 현재 확인할 수 없는 『민주신보』를 제외하고 『국제신보』와 『부산일보』에 발표된 시는 50여 편에 이른다. 주로 지역 작가 중심으로 작품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시민과 학생들도 주요한 창작 주체로 활동하고 있었다. 창작월별 작품 편수는 1960년 4월과 5월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혁명의 열기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무엇보다도 신문매체의 기동성에서 힘입은 바 크다. 6월 이후 혁명시가 의례화되고 창작 편수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까닭은 혁명문학선집의 발간과 관련이 있다. 대체로 추도시가 압도적으로 많고, 정치시와 증언시가 혁명시의 유형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들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전면화하면서 민주주의적·평등주의적·민족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한편, 희생자들의 고귀한 죽음을 기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결연한 의지를 다지면서 혁명정신을 계승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4월혁명 50주년을 앞둔 지금까지 시, 소설, 희곡, 수기, 아동문학, 방송문학 등을 모두 갈무리한 『4월혁명문학전집』을 가지지 못한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초라하다. 이제는 아직껏 실체가 알려지지 않은 문학사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단위의 신문 잡지매체에서 광범위하게 생산된 4월혁명문학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의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용규, 1960.7.3, 『朱烈은 죽지 않았다!』, 국제신보사.
- 김용호 역음, 1960, 『抗爭의 廣場』, 신흥출판사.
- 김종운·송재주 역음, 1960, 『不滅의 旗手』, 성문각.
- 신경립 역음, 1983, 『4月革命紀念詩選集』, 학민사.
- 신동엽 역음, 1960, 『學生革命詩集』, 교육평론사.
- 이상로 역음, 1960, 『피어린 四月의 證言』, 연학사.
- 정 천 역음, 1960, 『힘의 宣言』, 해동문화사.
- 조정식, 1960.7.15, 『4·19의 별』, 아동문화사.
- \_\_\_\_\_, 1968, 『이 생명 다하도록』, 미림출판사.
- 조화영 역음, 1960, 『四月革命鬪爭史』, 국제출판사.
- 한국시인협회 역음, 1960, 『뿌린 피는 永遠히』, 춘조사.
- 현역일선기자동인 역음, 1960.5, 『四月革命—學徒의 피와 勝利의 記錄』, 창원사.
- 그 외 『국제신보』, 『부산일보』, 『부대신문』, 『동아대학보』.
- 김대상, 1981, 『釜山慶南言論使研究』, 대왕문화사, 217~238쪽.
- 김지태, 1976, 『나의 履歷書』, 한국능률협회.
- 김진송, 2006, 『장미와 씨날코』, 푸른역사.
- 박경장 편저, 1967, 『釜山言論界現況』, 부산언론계편찬회, 12~32쪽.
- 박태일, 2007, 「1960년 경자마산의거가 당대시에 들앳은 모습」,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75~115쪽.
-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역음, 1998, 『부산민주운동사』, 부산광역시.
- 유영국, 2004, 「한국 정치변동과 부산시민의 정치적 역할: 4월혁명, 부마항쟁, 6월항쟁을 중심으로」, 『부산학 총서』제2권, 신라대 부산학연구센터, 135~185쪽.
- 이광우, 2003, 『회고와 추억』, 자가본.
- 이순욱, 2006, 「남북한문학에 나타난 마산의거의 실증적 연구」,

- 『영주어문』 제12집, 영주어문학회, 267~297쪽.
- \_\_\_\_\_, 2007(a), 「4월혁명시의 매체적 기반과 성격 연구」, 『한국 문학논총』 제45집, 한국문학회, 365~407쪽.
  - \_\_\_\_\_, 2007(b), 「4월혁명과 북한 아동문학』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논총』 제46집, 한국문학회, 373~398쪽.
  - 자명김지태전기간행위원회 엮음, 2003, 『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았다』, 석필.
  - 전응덕, 2002, 『이 사람아 목에 힘을 빼게』, 중앙M&B.
  - J.키인(주동황 외 옮김), 1995, 『언론과 민주주의』, 나남.
  - 호르스트 슈타인메츠, 서정일 옮김, 2000, 『문학과 역사』, 예림기획.

| 투고일          | 심사일          | 심사완료일        |
|--------------|--------------|--------------|
| 2009. 10. 31 | 2009. 12. 10 | 2009. 12. 15 |

## 【국문초록】

이 글은 4월혁명 시기 부산 지역에서 생산된 4월혁명문학의 창작 환경과 성격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부산에서 4월혁명문학이 주도적으로 창작될 수 있었던 까닭은 한국전쟁기 이후 문화지형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성장, 청년학생운동 조직의 결성과 활동, 국가의 의지에 굴복하지 않은 언론 방송매체의 공론장 형성과 여론 주도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특히 신문매체는 4월혁명문학 창작의 결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였다. 지역 연고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전문문인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학생들이 주요한 창작 주체로 발표지면을 장식했다. 혁명문학이 1960년 4월과 5월에 집중된 까닭은 당시 여론을 주도했던 신문매체의 기동성에 힘입은바 크

다. 『힘의 선언』은 혁명이 갖는 부산 지역의 대표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념시집이다. 4월혁명시는 추도시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정치시와 증언시가 혁명시의 유형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4월혁명기간 동안 부산 지역에서 전개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양상과 그것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부산 지역의 독자성을 추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산의 거의 경험에서 촉발된 4월혁명문학 일반이 가지는 특징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항쟁의 역사성 또는 개별성과 연관시켜 지역에 눈길을 주는 것은 공식적·통시적 흐름으로 수렴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재구성이란 측면을 강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핵심주제어** : 4월혁명, 부산, 정치문학, 혁명시, 아동문학, 매체, 『부산일보』, 『국제신보』, 김태홍, 손동인.

### **【Abstract】**

---

---

## **April Revolution Literature and Busan**

Lee, Soon-wook / Pusan National University

---

---

The April Revolution is remembered, among others, as a time of forced silence. In particular, lives and experiences in regions represent most of the memories for the revolution, which seems to be different from Korea's unique social and cultural atmosphere where almost everything is revolving around Seoul. In that sense,



focusing on the April Revolution poetry presents a new perspective to use literature to reconstruct the regional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This paper aims to examine under what circumstances poetry about the April Revolution were created in the Busan region as well as their characteristics during the Masan protest followed by the April Revolution. The scope of poems were limited to those published in newspapers, the most mobile type of media.

First, the defining factors for the creation of the April Revolution poems were provided by newspapers. Except for the currently unverifiable 『Minju Sinbo』, more than 50 poems were published in 『Kookje Sinbo』 and 『Busan Ilbo』. Major regional writers created most of the poems, while some citizens and students played as important writers. The number of creations was concentrated on April and May in the year, which was supported by enthusiasm for the revolution, social atmosphere of the time and mostly by the mobility of newspapers. Since June, revolutionary poems became a formality, showing a noticeable decrease in the number of creations, which is due mainly to the publication of a collection of revolutionary literature.

The dominating poetic form of the revolutionary poetry was memorial poems, followed by political poems and poesie—temoignage. This demonstrates that those poems brought the criticism of and the fight against the rule of President Rhee, Syngman to the fore and pursued democratic, equalitarian and nationalistic values, while paying tribute to the noble sacrifice of the fallen, renewing their commitment and succeeding the revolutionary spirits.

It is difficult to find poems that elaborate on historical

experiences of the April Revolution in Busan. In other words, the Busan region had few literary works that embody the democratic movement against the dictatorship during the April Revolution. They just show the characteristics of literary works representing the April Revolution in general spurred by the experiences from the Masan protest, so much so that it is hard to extract their originality. Nevertheless, paying attention to the region by linking the historicity or the thiness of the struggles that Busan and Masan have respectively is meaningful, because this can emphasize the reconstitution of the pieces excluded from the diachronic and synchronic trends of the April Revolution literature. History is not a single current, but an interaction of many different forces. Therein lies the importance of the April Revolution literary works produced in Busan which was not directly connected, but directly affected by the Masan protest, which sparked the April Revolution.

**Key words** : April Revolution, Busan, political literature, revolutionary poetry, children's literature, media, 『Busan Ilbo』, 『Kookje Sinbo』, Kim, Tae—hong, Son, Dong—in.